

순천만정원 맨발로 걸어요...10일 '어싱데이'

'스탬프 투어'·'해설사와 함께...' 3개 구간 완주 인증 기념품도 오천그린광장서 '어싱 스킵'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10일 맨발로 정원을 걷는 '정원 어싱데이' 행사를 연다. 오천그린광장 인근 산책길을 걷는 방문객들. <순천시 제공>

반환점을 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오는 10일 국가정원을 맨발로 걷는 '정원 어싱(Earthing) 데이'를 연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쉽과 사색이 있는 고품격 웰니스(웰빙+피트니스) 체험'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그동안 국가정원을 맨발로 걸으며 지구와 소통하자는 '어싱' 체험을 선보여왔다.

이날 행사는 국가정원 어싱 구간을 걸으며 도장을 찍는 '어싱 스탬프 투어'와 '해설사와 함께 하는 어싱투어' 등으로 구성됐다.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도 출신 럭키와 독일 다니엘, 이탈리아 알베르토도 국가정원을 찾아 '월데이 어싱 스킵' 행사에 참여한다.

'어싱 스탬프 투어'는 10일 오전 9시 국가정원 동문과 서문에서 출발한다.

참가자들은 '어싱 지도'를 받아 1.2km 구간 키즈가든, 1.2km 개울길광장, 0.8km WWT(Wildfowl and Wetland Trust) 습지 등 3개 구간을 완주하면 된다.

3개 구간 완주 인증 도장을 받아오는 참가자 선

작순 200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준다.

노관규 순천시장(조직위 위원장)과 박람회 홍보대사들이 참여하는 '월데이 어싱 스킵'은 이날 오후 4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국가정원 남문 입구에서 참가 신청한 뒤 신발주머니를 받으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해설사와 함께 하는 어싱 투어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어싱 투어는 국가정원 동문과 서문에서 떠난다.

한편 박람회 조직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순천만국가정원 맨발 걷기 도전'을 진행한다. 행사 진행 3주를 앞두고 참가자는 8000명을 바라보고 있다.

조직위는 행사 기간 20일 이상 걷기에 성공한 1000명에게는 기념품 교환 1만원권을 줄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박람회 개막 이후 오천그린광장과 국가정원에서 '어싱'을 하는 시민들과 관람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어싱이 낯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남녀노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어싱의 효능에 대해 몸소 체험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물' 개장 기념 이달까지 무료 배송

개장 첫날 4400만원 매출

곡성군 온라인 종합 쇼핑몰 '곡성물'(gokseongmall.com) 개장 기념으로 이달 말까지 할인전과 무료 배송 혜택을 이어간다. 곡성군은 '곡성물'을 연 지난 5일 하루동안 4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애초 곡성군이 목표로 잡았던 9월 한 달 매출(1000만원)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날 곡성물에는 2200명이 가입했다. 곡성물은 개장을 기념해 신규 회원에게

30% 할인권과 10% 할인권, 3000원 할인권 등 혜택을 제공한다.

9월 한 달 동안은 모든 상품을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

곡성물은 맛과 작성사 가운데 추천을 통해 곡성 대표 쌀 백세미(1kg)를 주기로 했다.

곡성물에는 지역 80개 업체가 품질을 인정 받은 267개 품목을 선보인다. 누룽지 향이 매력인 백세미와 한우, 멜론, 배, 한과, 토란파이, 수제 치즈 등 다양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만날 수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

보성 청년공동체 내일 군청 광장서 문화 축제

보성지역 청년공동체가 오는 9일 문화 축제를 연다.

축제는 보성군 청년협의체가 주관하는 '청년하신가요?'와 단미희 주관 '푸른 하늘의 날' 두 가지가 마련된다.

이날 오후 4시 보성군청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청년하신가요?'에서는 지역 청년들과 나누는 대화, 청년 예술인 공연, 행운권 추첨 등이 이어진다.

'푸른 하늘의 날'에서는 푸른 하늘을 위한 대기 오염 방지 홍보, 벼룩시장, 먹거리 공간 등이 진행된다. 이날 분홍색 옷을 입고 가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보성군 청년협의체는 청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청년 모임이다. 그동안 보성군 청년광복간담회, 보성군 의원 청년협의체 간담회, 청년정책 포럼을 열어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구봉산 어사길 산책로 주차장 준공

591㎡ 면적 20면 주차 규모

광양 구봉산 전망대로 이어지는 어사길 산책로에 20면 규모 주차장이 준공됐다. <사진>

광양시는 '구봉산 전망대 어사길 산책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구봉산 산책로에 591㎡ 면적의 주차장을 지난달 말 준공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구봉산 산책로에는 1.85km 길이 어사길 산책로가 새로 개통됐다.

이후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어사길 산책로 진입로인 성황도이지구 농협주유소 옆에 주차 공

간을 마련했다.

광양시는 주차장 인근에 나무를 심고 정자를 마련해 쉼터를 조성했다.

구봉산 전망대는 광양 9경(景) 중 하나로, 초입부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어사길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광양만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구봉산 어사길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남긴 어록 "조선에서는 전라도, 전라도에서는 광양"(조선지전라도요 전라지광양)을 주제로 꾸며졌다. 초입부터 출두길, 출두길 삼거리, 어사길 삼거리, 어사길 전망대까지 이어진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선정 고흥군, 사업비 167억 확보

고흥군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공모에 성공해 사업비 167억을 확보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주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공모에 최종 확정돼,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모는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신청했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시급성, 지자체 의지 등에 대해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전국 3개 시·군을 후보로 지정했으며 고흥군이 최종 선정됐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생산시설은 가축분뇨 퇴비화에서 벗어나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신소재 에너지화를 통해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 형태를 선보이게 된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고흥만 간척지 일원 4.3ha 부지에 1일 150t의 가축분뇨를 무산소 상태에서 탄화시켜 약 18t의 가축분뇨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바이오차는 훌륭한 토양개량제 역할을 하며 이에 더해 사용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고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퇴비화 시설과 달리 당일 반입된 가축분뇨를 당일 처리가 가능하고 생산과정 중 가축분뇨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분뇨 보관기간 장기화에 따른 악취, 해충 등의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삼한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를 숯과 같은 형태의 고체연료나 바이오차로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되고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전망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여수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 청년나이 18~45세로 확대

여수시가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 나이를 18-45세로 확대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의 연령 범위 상향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의 청년 나이는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여수시 청년 인구는 기존 6만 13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22.5%에 해당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8만6600(31.8%)여명으로 2만5300여명이 늘어났다.

연령 범위 확대되면서 여수시 경제·사회 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40대가 청년정책의 수혜자로 편입됐다.

청년 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청년의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청년 기본조례에 '사회적 고립 청년'과 '역외 청년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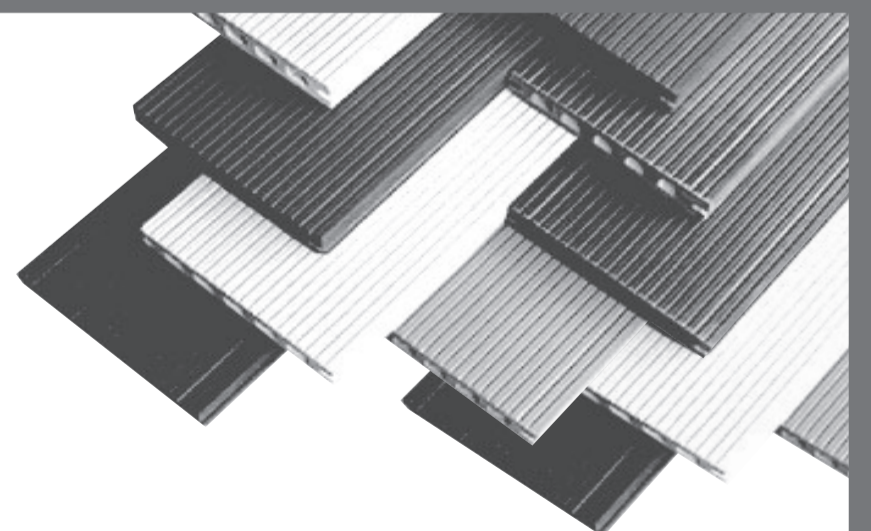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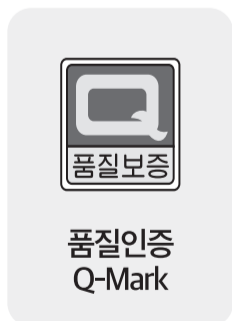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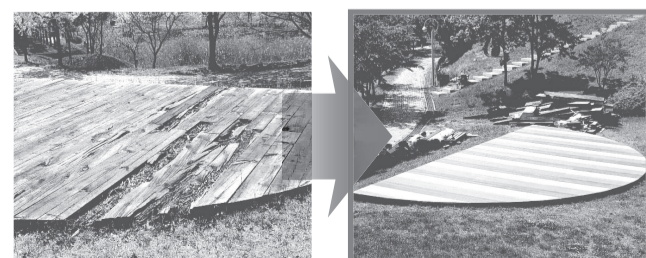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